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테스트 베드 '고흥' 확정

드론 택시·플라잉카 등 미래 비행체산업 선제 대응 시장 규모 2040년까지 731조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 고흥이 확정됐다. 전남도는 30일 "국토교통부의 UAM 탐코리아 본협의회 회의 결과 고흥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구역(면적 380km)을 확보하고 있으며, 군·민간 항로와 겹치지 않는다. 항공센터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내 비상착륙장과 격납고, 이착륙장, 계류장, 전기시

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어 미래 비행체 시험평가·실증·인증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 받았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미래 비행체 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도심 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함께 시험과 운영을 검증하게 된다. 미래 비행체 산업 시장 규모는 오는 2040년까지 731조원(K-UAM 로드맵)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내년에 국비 지원액 78억5000만원을 투입해 이착륙장과 이동식 중전설비, 비행 모니터링·통제센터, 소음측정 설비, 감시 레이더, 통신 장비, 기체 탑재용 모듈 등 인프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비행 실증을 통해선 풍속·강우 등 상황에서 기체의 정상작동 여부, 통신·감시 지상설비와 원활한 연계 작동 등을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단계로 오는 2024년까지 개할지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2단계로 2025년부터 수도권 실증노선 테스트를 통해 일부 노선을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운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착공에서 준공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비행 실증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미래 비행체 앵커 기업을 전라남도에 유치하는 등 차세대 교통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고흥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조감도. <전남도 제공>

전남도 예능영재키움사업 '새천년 인재육성' 성과

전남도가 도내 초·중 예능영재에게 전문교습을 지원해준 '2020년 예능영재 키움 사업'이 참여 학생들의 예술고, 관련 대학 등의 입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능영재 키움 사업은 전남도의 민선7기 브랜드 시책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예술분야에 잠재력을 갖춘 청소년을 발굴해 미래 예술인재로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올해 음악·미술·무용분야 초·중 예능영재 87명을 선발해 지난 7월부터 70여 시간의 전문교습을 실시했으며, 주말 교습뿐만 아니라 방학에도 집중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실기능력 향상 등 만족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3학년 참여학생 중 올해까지 30명이 사교육 없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사업 첫해인 2017년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2명은 꾸준히 성장해 올해 대학교 음악학과에 합격한 결실을 맺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실국장급 승진·전보 인사 단행

전남도는 지난 30일 공로연수에 따른 3급 승진과 장기교육·과건, 부단체장 전출·입에 따른 실·국장, 부단체장, 준국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도민안전실장에는 고재영 전남체육회 행정지원처장을, 정책기획관에는 교육을 다녀온 김기홍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경제에너지국장은 주순선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농축산식품국장은 소영호 정책기획관을, 자치행정국장은 손점식 비

서실장을 발령했다. 한국에너지공단대설립지원단장은 김신남 목포부시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에는 유현호 부이사관이 배치됐다. 준국장급으로는 비서실장에 김명신 서기관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추진단장에는 김정완 장흥부군수를 발령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15.4km 4차로 확장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비 50% 국비 지원

광주 광산구와 전남 장성을 잇는 광역도로가 4차 도로 확장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30일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본·

실시설계에 착수,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구역별로 각자 시행한다. 사업비는 모두 11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설계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두 지자체에 걸친 광역도로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광주 광산구 장수교차로에서 고봉로 임곡을 거쳐 장성 삼무 평화공원까지 15.4km(광주 8km·전남 7.4km) 구간의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한다.

이 사업은 2007년 국토부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국고 보조 사업으로 반영돼 2009년 국토부 투자심사를 거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무산됐다. 이후에는 국토부 투자심사를 넘지 못했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전남도와 광주시를 잇는 초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며 "시도 상생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실국장급 프로필

고재영 도민안전실장 합리적이면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졌다.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도 깨끗한 마무리로 정평이 나 있다. ▲담당(58) ▲여수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김기홍 정책기획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해 조직에 활력을 주는 스타일이다. 정부부처와의 인맥도 두터워 교류를 통한 다양한 기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곡성(53) ▲고위정책과장 교육 ▲고흥부군수	
주순선 경제에너지국장 일처리가 깔끔한 것은 물론 자상하고 너그러운 성품으로 따르는 이들이 많다. 전남의 미래산업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았다. ▲고흥(53) ▲전남문화재단 파견 ▲한전협력관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 꼼꼼하고 치밀한 업무추진으로 실수가 없는 스타일이다. 위기에 직면한 전남 농정을 도약의 기회로 되돌릴 적격자라는 평가다. ▲장성(51) ▲정책기획관 ▲비서실장	
김신남 한국에너지공단대설립지원단장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갖춰 어디서나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조기 개교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해남(55) ▲일자리정책본부장 ▲경제과학국장	
유현호 투자유치본부장 유연한 사고와 합리적인 성품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 제 궤도에 올리는 능력을 가져 기대를 받고 있다. ▲광양(51) ▲인구정책관 ▲보성부군수	
손점식 자치행정국장 매사 성실하고 꼼꼼한 일처리로 지사의 신임을 받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직위승진과 동시에 총무·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다. ▲영암(57) ▲비서실장 ▲총무과장	

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계속됩니다.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에덴병원"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원장 허 정 외 임직원일동

초음파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도입

자궁근종센터에서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근종, 선근증 치료

- 제 1회 임신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한국 여성민우회 「아름다운 병원」 선정
- 전국병원 의료기관 중 부인과 수술비가 가장 낮은 1위 병원

진료 내용
산부인과, 내과, 유방·갑상선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자궁근종센터, 건강검진센터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암로 170번길 10(두암동)
대표전화 | (062)260-3000